유/관/기/관/칼/럼

"정보화 세계를 정복할 사람은 우리이다"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진흥팀 책임연구원 장화운
(02)6009-4604 chy@ksa.or.kr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대순으로 보면, 알렉산더(348만 평방킬로미터), 나폴레옹(115만), 히틀러(219만)을 떠올릴 것이다.

모두 서양 사람들이다. 부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동양 사람으로서 이들 세 명이 정복한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150년 이상 통치한 사람이 있다

바로 칭기스칸(777만 평방킬로미터)이다. 동쪽으로 고려에서부터 서쪽으로 헝가리까지, 북쪽 시베리아로부터 남쪽 베트남 근방까지 그와 그의 손자이자 원나라의 시조인 쿠빌라이칸이 정복한 땅이다 당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마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2년이 걸렸다니 가히 그 광활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의 건설이다. 당시 몽골의 인구는 100~200만 명이었다, 이 숫자로 중국, 이슬람, 유럽사람 1억~2억 명을 정복하고 지배했다. 현재로 보면 그가 정복한 땅은 30개국이며 인구로는 30억이 훨씬 넘는다

이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자기나라 문자도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민족이 어떻게 자기보다 100~200배나 큰 나라를 아우르고 150년간 제국을 통치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꿈','꿈의 공유'이다. 그들은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얼마든지 현실로 가꿔낼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녔다. 미래를 향해 비전을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다.

비전의 공유는 열린 사고를 할 때만 가능하다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다만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해 남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 꿈은 결코 공유될 수 없다 공유되지 못한 꿈은 한낱 꿈(春夢)에 불과하다.

이런 열린 사고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 답은 유목민의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농경민족과 달리 유목민은 항상 옆을 봐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하려면 싱싱한 풀이 널려있는 광활한 초지를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그래서 더 뛰어난 이

농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초원에는 미리 정해진 주인이 없다. 실력만으로 주인자리를 겨룰 뿐이다. 지면 재산은 빼앗기고 노예가 된다.

초원에서는 하루도 안주한 삶을 살 수 없다 사방이 트인 초원에서는 동지가 많아야 살아 남고 적으면 죽게 된다. 이런 사회에선 개방이 최상의 가치로 통한다. 그래서 그 사회는 출신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보상하는 사회가 된다.

그러나 농경정착 민족은 어떠한가. 그들의 관심은 오직 경작할 땅과 비를 내려줄 하늘이다.
옆을 볼 필요 없이 하늘(위)과 땅(아래)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우선 성을 쌓아 외부와 단절시킨다. 이웃사람, 이웃나라와 교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사회는 소유의식이 강하고 관료제가 발달한다. 천자와 왕을 대신하는 관리들이 나서서 사람사이의 분쟁을 해결 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행정을 편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 막는 계급과 계층들이 생겨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군림해서 아래를 착취한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아첨하면서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착취하려 든다. 자리를 지키고 이권을 지키려고 사람들마다 혈연으로 뭉치고, 지연으로 묶고, 학연으로 얽어맨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멸시한다.

이런 사회는 닫힌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갇힌 사회가 된다.

이렇듯 사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로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다. 더 이상 농경정착 민족의 의식으로는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념을 지배하던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변혁의 시대에 변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은 휴대폰과 컴퓨터가 사이버 세상의 기마군사를 양산하고 있다. 전 지구의 정보가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빛의 속도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칭기스칸을 생각해보자. 몽고 초원의 야만한 족속으로 불리던 그들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보다 100배 200배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제국을 15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을까.

첫째, 그들은 속도 숭배주의자들이었다. 수적 열세에서 세계 정복을 나선 몽골 유목민들은 사람 수를 당장 늘릴 수는 없지만 속도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은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을 가축화하여 기병체제의 병력을 구성하였다. 이 체제는 놀라운 행군 속도와 신속한 명령체제를 창출해 놓았다. 그들은 한 명의 병사당 5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 1마리를 보르츠라는 육포로 만들어 소 방광에 모두 들어가게 하여 병사 1명당 1년의 식량을 해결하게 하였다.

둘째, 정보 마인드가 있다. 유목민족에 있어 정보 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들이 생활하는 초원은 끝이 없는 광활한 벌판이다.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내가 어디에 숨어야 할지를 항상 경계하고 살펴야 한다. 초원에는 눈을 피한 은둔

한 산과 숲이 없는 것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평선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내야 했다. 그들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오는 방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였다.

셋째,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칭기스칸은 자기를 부를 때 칭기스칸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 즉 테무친이라 부르라 했다 ' 각하'. ' 님' 식으로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칭기스칸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심지어 정복한 민족과 정복당한 민족간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칭기스칸은 생전에도 검소하게 살았고 사후에도 그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무덤도 없이 묻혔다

「워싱턴포스트」지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천년(10001년에서 2000년까지)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칭기스칸이라 발표했다. 그는 구미인에게 가장 호전적이며 잔인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광대한 지구를 최초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으며, 인종·언어·종교·문화의 차이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실력에 따라 누구라도 등용되는 사회, 멸시받던 농민과 서민을 비롯한 하층대중에게 출세와 성공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학자들은 이 격동의 시대를' 제3의 물결'.' 글로벌 경제'.' 지식의 지배'.' 세계화'.' 정보화' 등 다양한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세상 한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아시아의 북쪽, 그것도 모자라 세계열강의 힘의 의해 둘로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러나, 칭기스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100단명으로 2억 인구의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다고". 표준